

Ep3. 방심할 수 없는 소변

괜찮아, 소변이야. 과연 그럴까?

🔍 하기스가 알려주는
쓸모 있고
신비한
잡학사전



엄마품처럼 편안하게





부모들은 대부분 아기가 대변을 보고 난 후에는
잘 씻기고 말려 줍니다.

하지만 소변을 보고 난 후에도
일일이 닦아 주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.

과연 소변은 닦지 않아도 괜찮을까요?

닦지 않은 소변이 발진을 키운다

〈 물과 아기 소변의 피부 침투력 차이 실험 〉

종 류	분당 H_2O 침투 정도 (CPM: Mean \pm SD)
마른 패치	12,975 \pm 5,900
물	17,563 \pm 5,414
아기 소변	290,245 \pm 24,600

탈 없는 취의 피부에 각각 마른 패치, 물, 아기 소변을 10일간 노출시킨 후 추적 물질의 피부 침투성을 비교한 실험. 아기 소변에 노출시킨 취의 피부에서 침투성이 가장 높음을 알 수 있다.
출처 : Pediatric Dermatology Vol. 3 No. 2 102-106, 1986

소변은 물과 달리 피부에 묻어 있게 되면 피부에 자극을 주는 성분의 침투력을 높여 피부발진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소변을 본 후에도 꼭 닦아 주는 습관이 필요합니다. 매번 물로 씻기기 어렵다면 물티슈로 깨끗하게 닦고 잘 말린 후 기저귀를 채워 주어야 합니다.

“ 기저귀는 젖은 즉시 피부를 잘 닦아 주고
말린 후 갈아 주어야 한다는 것.

결국 **발진은 예방이 최선**이라는 사실.
잊지 마세요! ”

올바른 기저귀 교체 횟수는?

하슬신잡 마지막 이야기에서 알려 드립니다.



#대한 피부과 의사회 김산 의사

엄마품처럼 편안하게

